

『연의각』 장면·재담·서술의 독서 효과*

— 1910년대 통속소설 독서경험 구성을 위한 한 사례로서 —

주형예**

<차 례>

1. 서론
2. 감정 경험의 방식: 장면 구성의 정서 편향적 독서 유도
3. 언어적 쾌락의 경험: 재담/노래 읽기와 감각적 유희적 독자
4. 상식 도덕 확인의 경험: 서술자 개입과 해석, 대표독자 효과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홍부전』 중 20세기 초 출판되었던 『연의각』을 대상으로 20세기 초 독서 경험의 질을 탐구하고자 마련되었다. 『연의각』은 독자들이 재현된 대상을 정서적으로 수용하도록 서술하거나 장면을 구성했으며, 재담·노래와 같은 감각적 유희적 기제를 통해 언어적 쾌감을 제공하는 대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의미 구성의 면에서는 상식 도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반성이나 갈등보다 기존 담론 안에서 편안하게 독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의 결과, 『연의각』 텍스트적 특성은 감성과 쾌락과 상식에 근거하고 있는 통속적 경험으로 이어지는 기반이었다. 이것은 정서적·감각적·유희적 독자, 수용적 독자라는 이 시기 통속 소설 독자의 성격을 추론하도록 한다. 이는 도시의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하지 않았던 때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종합적 매체로서 기능했던 소설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A00282)"

**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원

주제어 홍부전, 연의각, 서술, 장면, 감각, 쾌락, 도덕, 상식, 유희, 통속 소설, 20세기 초, 독서 경험

1. 서론

<홍부전>은 설화·동화·판소리·소설·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으로 향유되어 온 작품이다.¹⁾ 그 이본 중 하나인 『연의각』은 심정순이 구술한 것을 이해조가 산정(刪定)하여 1912년 4월 29일부터 6월7일까지 『매일신보』 1면에 연재하였던 텍스트이다. 이후 1913년에 출판되었고 여러 번 재판되면서 읽혔다. 그러므로 『연의각』은 근대 초기 매체·출판 환경의 변모를 대변하는 텍스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경판본과 모티프 구성의 유사성을 보이지만 어느 정도 이해조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산정의 범위는 명확하게 단정짓기 어렵다.²⁾ 또한 구술자 심정순

-
- 1) <홍부전> 연구는 판소리와 소설에 걸쳐있는 텍스트 형성 과정의 특수성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다. 또한 주제 연구로 포섭될 수 있는 인물과 구성에 대한 접근도 많다. <홍부전> 연구의 대략적 경향은 유광수, 『홍부전 연구의 검토와 전망』, 『우리어문연구』23, 우리어문학회, 2004, 343~371면. 정충권, 『홍부전연구』, 월인, 2003, 1~357면에서 볼 수 있다.
 - 2) 송혜진은 『매일신보』에 연재된 심정순 구술 텍스트를 창본으로 보았다.(『심정순 창심칭가의 장단구성 특징』, 『정신문화연구』34, 정신문화연구원, 1988, 209~320면.) 최진형도 『<홍부전>의 傳承 樣相 : 出版文化와의 관련을 중심으로』(『어문연구』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205-228면.)에서 소리꾼의 구술이 더 많다는 의견을 폈다. ‘구쓰’나 ‘상해’ 등의 어휘, 매삿을 받았어야 하는지 후회하는 홍보의 심리 정도가 『연의각』만의 독특한 설정이라고 보았다. 몇 가지 대목에서 문맥이 어긋나는 당착은 구술 연행의 특징이므로 이해조 산정이 미미했으리라고 의견을 내고 있다. 정충권은 『연의각』의 계통과 성격』(『개신어문연구』24, 개신어문학회, 2006, 69~87면)에서 몇몇 장면을 근거로 『연의각』에서 놀보의 부정적 면모를 강화한 것은 창본 <홍보가>와는 다른 방향이라고 하였다. 그와 더불어 성적 표현을 완화시키거나 인물의 도덕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이해조 산정의 한 방향이라 생각된다.(서두 부분의 윤리적 설교(1), 매품과는 것을 반대하는 홍부 아내(22~25), 장비 비역 장면의 대체(88)도 애초에 이해

은 20세기 초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중고계 창자였고,³⁾ 『매일신보』는 독자할인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연극공연에 협조하면서 연재소설의 인기를 높이려 했다⁴⁾는 등 여러 정황은 연재소설이었던 『연의각』이 공연 무대나 음반 판매 전략과 연동하였으리라 암시한다. 이는 『연의각』이 전 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문화 토양에서 생산된 텍스트이면서 새로운 출판·매체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의각』은 20세기 초 판소리 공연 중 하나로 익명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무대 환경을 만났고, 신문 연재소설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활판본 소설이라는 새로운 매체 형식과 결합된 <홍부전> 이본 중 하나이다. 이처럼 한 작품을 여러 매체로 소비하는 문화 향유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연의각』을 읽는다는 것은 특정 작가의 현대소설을 읽는 것과는 다른 문화적 경험으로 작용한다. 소설 읽기의 독특한 문화적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연의각』 읽기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⁵⁾ 그 결과는 당대 시정에 형성되어 있었던 공통 심성과 재현(representation)에 대한 한 사례를 보여줄 것이다.

<홍부전>은 재담의 성격이 강하다. 『옹고집전』·『개우사』·『골생원전』 등 재담의 성격이 강한 텍스트가 연행에서 패트론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홍부전>도 19세기 말 여타 레파토리에 비해 연행에서 밀려나는

조가 지향했던 도덕적 윤리 지향의 산정이라는 취지에 맞는 부분이다. 서사적 논리가 어긋나는 서술은 전면적 개작이 아니라 도덕적 성격만 강화시키는 방향이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3) 송혜진, 위의 논문, 이보형, 『심정순의 생애와 예술』, 『한국음악사학보』18, 한국음악사학회, 1997, 9~16면. 배연형, 『심정순일가의 음반』, 『한국음악사학보』28, 한국음악사학회, 2002, 5~28면.

4) 권보드래,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267면.

5) 현재도 대중문화의 장에서 영화/연극/소설/뮤지컬 등이 하나의 콘텐츠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연의각』 역시 그러한 상품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경향이 있었다.⁶⁾이런 <홍부전>이 독서물로 정착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이해조 산정의 『연의각』이다. 물론 『연의각』에 나타나는 특징은 대부분 『연의각』 고유의 것이 아니라 <홍부전> 일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의각』이 출판 텍스트로서 시정에서 가졌던 영향력이나 이후 <홍부전> 출판에 미친 영향을 생각한다면⁷⁾ 『연의각』에 집중한 논의 또한 필요한 작업이다.

『연의각』은 시각적 읽기의 텍스트일 뿐만 아니라 노래나 재담 등 실제 연행 요소와 리듬 있는 언어로서 다양한 감각을 환기시키는 텍스트이므로 실제 낭독에 적합하다. 이는 당대 독자들의 읽기 방식과 조응하는 부분이었다.⁸⁾ 텍스트를 구성하는 서술적 특징들이 독자들의 읽기 방식을

6) 이보형은 「판소리 공연문화의 변동이 판소리에 끼친 영향」, (『한국학연구』7,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995, 261~319면.)에서 홍보가를 재담소리라고 하여 가르치지 않았던 창자들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확실한 더듬을 가지고 있을 때 공연으로 향유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김종철, 「실전 판소리의 종합적 연구 - 판소리사의 전개와 관련하여 -」, 『판소리연구』3, 판소리학회, 1993, 87~153면 참조.) 그러나 20세기 초의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또한 비용을 지출하는 판소리 후원자의 미감과 소설 향유층의 미감은 동일하지 않은 듯하다. 극장의 대중들은 좌상객들과 동일하지 않으며, 신문매체와 활판매체의 등장은 전대와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조건이 된다. 향유층의 성격이 시차를 두고 달라진다는 것, 각 매체가 서로 공조하고 있다는 것이 『연의각』을 읽는 경험 이면의 역동성을 구성한다.

7) 출판된다는 것은 텍스트의 고정과 대량 생산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전 필사시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서구에서도 근대 초기 서적 매체가 의사소통의 역사에서 지니는 혁신적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베르너파울슈티히, 『근대초기 매체의 역사』, 지식의 풍경, 2007, 385~438면 참조. 『연의각』은 이후 활판본에도 중요한 전거가 되었다(정충권, 2006)

8) 이 시기는 목독의 방식과 낭독의 방식이 혼용되었던 시기이다. 한글소설에 대해서는 낭독 방식의 읽기가 일반적인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낭독은 ‘듣기’ 청각성이 중요한 이미지일 수밖에 없다. 서사의 단순성과 리듬, 청각적 이미지 구성이 강화된 『연의각』 텍스트는 이 시기 이런 읽기와 조응되는 한글 소설 독자군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초보적 읽기가 음성학적 일대일 대응과정임에 비해 능숙한 읽기는 시각적 의미과정이다. 그러므로 한글 소설 독자들이 아직 의미를 추론하는 읽기에 이르지 못했던 것

따르며, 일면으로는 읽기를 구조화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서술과 구성 언어, 이야기 패턴에 대한 분석은 독자들을 구체화하는 필수 조건이 된다. 시정에 팔리는 소설로서 『연의각』은 독자들의 성향과 조율을 거치며 텍스트를 형성하였다. 또한 통속 소설 독자들이 전대부터 형성되면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연의각』도 전대 텍스트를 수용하면서 변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므로 이 텍스트는 전대의 텍스트를 가져와서 내용은 상품이 새로이 획득한 20세기 초 문화의 맥락과 독자를 설명하는 전거가 될 수 있다.

논의를 위해 이 글에서는 장면과 서술, 재담 언어를 분석단위로 하여 독서 경험을 분석하였다. 장면화된 것과 서술자의 직접 발언으로 나타나는 것, 재담으로 구성된 부분이 독서 텍스트로서 어떤 독서 경험을 이끌 어낼 수 있는지 분석하여 구체적 독자에 다가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사건을 공유하면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동질성을 노정하는 장면을 25개 단위로 나누었고, 서술자가 발언하는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또한 두 기준을 가로지르는 재담·연행적 요소로 구성된 23개 단위에 대한 어휘와 문장 분석으로 독서효과를 논하였다.⁹⁾

2. 감정 경험의 방식: 장면 구성의 정서 편향적 독서 유도

이 부분 논의를 위해 『연의각』을 사건·시간·공간의 동일성을 단위로 장면 번호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¹⁰⁾

도 소리를 강조한 읽기 텍스트를 만들어낸 바탕이 된다. (스티븐 로저 피셔, 『읽기의 역사』, 지영사, 2011, 16~17 참조.)

9) 분석 텍스트는 신구서림본 『연의각』(1913)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필름 출력본을 활용하였다.

(1) 연민, 공감, 슬픔

독서에서 연민과 공감, 슬픔의 감정은 홍보네의 가난과 놀보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홍보네, 설움 타령 등의 장면에서 발생한다. 특정 인물의 내면을 이해하거나 동일시할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 장면 서술에서 가난, 설움을 형상화하더라도 서술 태도의 차이에 따라 감정 효과는 달라진다.

- ① 홍보가 발치 지게 걸머지고 마누라 압흘 센이 비갓치 오는 눈물 옷깃시 다 젖는다 어린 것을 압세우고 한번 거러 도라보고 두 번 거러 도라보 되(8)
- ② 홍보 니의 어린 것을 압세우고 한 모롱이 돌아 쉬고 두 모롱이 돌아 쉬어 기운은 점점 업고 갈 길은 십리로다(8)

①에서는 ‘눈물’ ‘어린 것을 압세우고’ ‘도라보고’ 등 인물의 내면과 어휘, 이미지 등이 이 장면을 독자들이 연민할 대상으로 재현한다. ②에서는 서술자가 인물과 결합되는 ‘기운은 점점 업고 갈 길은 십리로다’는 독자에

10) 1. (2~8) 놀부, 홍보네를 내쫓고 재산을 독차지하다. 2. (8) 홍보네 묘막 살이하다. 3. (8~9) 홍보, 조상묘에 분향하다. 4. (9~10) 홍보 집짓기 재담 5. (10~11) 홍보네 가난한 살림살이 6. (11~19) 홍보, 형의 집에 밥 빌러 가다. 7. (19~22) 홍보가 형에게 매맞고 돌아오다. 8. (22~26) 홍보, 환곡을 얻으러 가다. 9. (26~28) 홍보와 홍보처의 매품논쟁. 10. (28~31) 매품팔이 11. (31~33) 홍보처 기도, 홍보, 허탕치고 돌아오다. 12. (33~34) 홍보, 김부자 조카와 대화하다. 13. (34~35) 홍보, 짚신 장사 준비하다. 14. (36~42) 홍보네 가난. 15. (42~44) 홍보, 제비 다리 고쳐주다. 16. (44~46) 제비 노정기 포함 제비의 발언. 17. (46~49) 제비 귀환. 18. (49) 홍보네 가난. 19. (49~59) 홍보박. 20. (59~67) 놀보 질투. 21. (67~69) 화초장. 22. (70~74) 놀보, 제비를 몰다. 23. (75~77) 제비 귀환과 보수. 24. (77~78) 놀보박 심기. 25. (78~99) 놀보박 타기

위의 장면은 각기 가난(1, 2, 5, 6, 8, 9, 10, 13, 14, 18), 인물의 슬픔(1, 5, 6, 7, 14, 18), 악행(1, 6, 20, 21, 22) 부의 획득(19, 20), 징벌(25), 선행(3, 7, 12), 등과 재담/연행을 재현한다. 각 장면에는 몇 가지 의미 지향이 공존하기도 한다.

게 인물의 내면에 동일시하도록 하는 서정적 효과를 거둔다. 곧 감정 효과는 어휘 선택과 행동에 대한 묘사적 서술, 인물의 내면 서술 등에 기인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설움을 표방한 장면에서는 인물이 자기 설움으로 선도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슬픔의 감정으로 이입될 수 있다.(①)그러나 슬픔도 서술의 성향에 따라 질적 수위 조절이 이루어진다.

- ① 불측흔 도척이도 이에서는 성인이었다 익고 다리야 익고 허리야 비가 곱혀 죽게 된 놈을 이대지 칠 수가 있나 익고 익고 니 팔즈야(19)
- ② 지빋무의 형제 되야 금옥갓치 익중즈를 헐벗기고 곱쥬리니...낙양옥중 고싱흔 숙낭즈에 설음인들 이 고싱에 더홀소녀(41)

①과 ②를 비교할 때 인물의 육체적 고통을 드러내는 ①의 서술과 달리 상투적 고사들만으로 인용되는 ②는 공유하는 공통 교양의 환기 효과가 슬픔의 감정보다 우선했으리라 생각된다. 묘사적 서술에서도 홍보의 처지에 대한 연민을 자극한다.

- ① 여러히 비인 집에 풍우가 거치렀고 고목만 의연한디 벼록 빈디 등의 피를 빨아먹고 것친 썬에 모기는 비가죽을 침질히고 밧갓히 세우가 오면 방안에 큰 비 오고 세우가 오면 방안에 큰 비 오고 엄동디흔 도라오니 살쫂듯시 부는 바람 오장이 저러오고 흐로 이틀 굴머노니 어린 자식...앞살 터진 현 망건에 물네줄 당줄 달아 압홀 놀너 흠벅 쓰고 모자 싸진 현 갓 양터 실로 층층 열거 미 죽영 갓근 달아쓰고 엄동디흔 찬바람에 고의적습 썰쳐 입고...(10~12)
- ② 홍보쳐는 콩이삭 벼이삭 쥬으러 갔다가 소니기 숨형체 비에 쫓기여 드러와 현 누더기가 쏘루루 저저 입을 것슨 업고 집안 드러 스스로온 스톱이 업슨잇가 북덧이 속에 가 어린 즈식 품고 드러누어 즈랴 하니 덤

풀 것 업서 업디려 즈즈 하니 테격이 덜 되엿고 반듯시 늙자니 남이
 붓쓰러 질마쓰지 겹쳐 누은 듯시 안저 잠을 자되 찬비를 맞고 쫓듯흔
 방에 누어 노으니 눈이 소로로 감기며 잠이 드난디(37)

①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최소한의 주거도 확보하지 못한 흥보가 놀보를 찾아가는 장면의 남루한 차림이 그려져 있다. ‘오장이 저러오고’ ‘엄동 디흔 찬바람에 고의적습 떨어 입고’ 등 육체화된 감각으로 서술하여 독자들의 공감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 텍스트에서 슬픔과 연민의 감정은 대개 의식주의 결핍을 조건으로 한다. 놀보가 재산을 독점하고 내쫓을 때에도 흥보의 처지는 가난한 살림살이로 대변된다(6). ②에서는 서술자가 직접적 감정을 시연하여 유도하는 어휘가 배제되어 있는데 시각적 이미지만으로 독자들에게 슬픔의 장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언어적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행위에만 주목할 때 우스꽝스러울 수 있으나 최소한 문화적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궁핍함, 차가움과 따뜻한 등을 드러내는 감각어와 인물의 수치스러운 내면, 이 장면을 초점화하는 서술 의도 등이 한 장면에 작용하고 있어 그로테스크한 효과에 이르렀다. 행동 묘사에 유용한 재담적 수법¹¹⁾과 서술자와 인물의 내면이 교차되어 표현되는 서술 기법으로 이른 복합적 이미지화라고 할 수 있다.¹²⁾

이와 같은 묘사적 서술이 슬픔과 연민의 감정이 되는 것은 서술자의 시

11) 주형예, 『19세기 판소리계 소설의 서술기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4장 참조.

12) 이런 곳에서 다성성이 유발되는 것이다. 김현주는 『판소리의 다성성, 그 문체적 성격과 예술사회학적 배경』, 『판소리연구』13, 2002, 127~149면에서 서술자의 목소리에 인물의 목소리가 침투하는 현상(130)으로 논의하였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에 이입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 효과를 통해 독자는 서술자의 감정 흐름을 따라 인물에 동일시하여 독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입장이 교체되면서 그 경계에서 미적 효과로서 기괴함(그로테스크)에 이르게 된다.

선이 홍보 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독자가 홍보 편에서 감정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네는 피해자·약자/선인/슬픔의 주체/빈자 등으로 다양하게 그려졌다.

- ① 제 형에게 엇지 압제를 받았던지 형의 목소리만 느도 위선 오장이 서늘
하고 스지를 벌벌 썰며(3)
- ② 즈기남편을 보니 류혈이 낭즈하야 얼굴이 모다 붓고 원몸을 만져보니
성흔 디가 바이 업스니 홍보 안해 기가 막혀 쌍에 펼석 쥬져안져 익고
익고 이게 웬일인가(20)
- ③ 여보 마누라 슬허말소 간난 구제는 나라에서도 못흔다니 형님인들 엇
지흐시나(21)

피해자의 모습은 ①과 같이 반복된 폭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②와 같이 실제 구타당하고 폭언을 듣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내쫓기는 육체·재산 상의 피해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③과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홍보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해 준다. 홍보와 홍보처의 도덕적 정당성은 그들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며 그것으로 독자들은 맘 놓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대목은 주의가 필요하다.

여보시오 으히 아버지 민품 말이 웬말이오 남의죄를 웃지 알아 더신이라
니 웬말이오 살인죄에 범혔는지 강도죄에 범혔는지 괴언취지 범혔는지 남에
죄를 엇지 알고 만일 영문에 올라갏다 여러날 굴문 몸에 영문 곤장 맞게되면
몇안마져 죽을테니 어서 그길 파의호오(27)

홍보는 처의 말을 듣고는 그 말을 따르겠다고 속이고 매품 팔러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온다. 그런데 홍보처는 ‘가군이 감영에 간후에(31)’ ‘정화수’
 띠 놓고 기도한다. 이처럼 『연의각』은 서술적 불일치를 감수하면서도 홍
 보처의 부덕(婦德)을 강조하였다. 여성에 대해 부덕을 강조하는 것은 전
 대 소설과 달라진 바 없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구태여 이 부분을 삽입하
 여 뒷부분과 불일치를 일으키는 것은 이 텍스트에 나타난 분명한 의지였
 다. 이 외에 홍보네가 가지고 있는 ‘정직한 돈’에 대한 생각과 ‘조상 섬기
 기도’¹³⁾ 이들의 도덕성과 관련된다. 곧 당시 이 텍스트에서는 가장 강조
 하고 싶었던 ‘우애’의 유무에 따른 선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정
 직성, 조상에 대한 예법, 부덕 등으로 홍보네의 도덕적 정당화를 시도하였
 다. 물론 이것은 당대 시정에서 통용되었던 도덕성이었다.¹⁴⁾ 그러나 도덕
 적 정당화는 전체 약자/피해자 묘사에 비해 장면화 경향이 약하며 서술자
 의 직접적 진술로 나타난다.¹⁵⁾

이러한 독서 과정에서 독자들은 묘사와 편향된 서술 시선, 도덕적 정당
 화, 감정 어휘와 육체적 감각 표현으로 내면과 고통이 드러나는 홍보네
 편에 감정을 이입하여 슬픔과 슬픔과 연민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13) (26) 필경 이 길싸에서 었어 왓슬 터이니 일은 스름이 원통치 안이갸소 여보 으히
 아버지 돈 었던 길싸에 빗비 갓타노코 돈입즈가 와서보고 꿈압다 말을 호고 한량을
 주던지 돈량을 주던지 그는 정당홀 일이니 어서 가서 츠져쥬우/ (34) 마졌스면 히롭
 지 아인 슈가 잇슬터인데 못맛졌다네/이 두 대목은 돈에 대한 정직성을 덕목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착후슬스 홍보마음 쥬머니 만져보니 쓰던 돈푼 들엇거늘 주막
 집에 바비가셔 슬흔잔 바다들고 묘막으로 도라와셔 여보 마누라 우리 산소에 성모가
 읍시다/ 홍보의 선함은 조상을 잘 섬긴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당시 시정 도덕적
 상식에는 ‘돈에 대한 정직성’ ‘조상 잘 모시기’ 등도 포함한다.

14) 1920년대 시정의 윤리의식에 대해 연구한 다음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근대
 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여도 사람들의 심성이 모두 근대 자본주의적으로 재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질적 가치관에 토대를 두고 있는 행동방식이 교차하는 공간이 바로
 시정이다. 홍성찬, 『한말 일제초 서울 종로상인(鐘路商人)의 일상활동 -포목상(布木
 商) 김태희 가(家)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133, 2006, 115~173면.

15) 4장에서 다룰 것이다.

(2) 공분(公憤)

위에서 설명했듯이 흥보 편에서 사건을 경험하도록 장면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놀보의 악행은 공분의 대상이 된다. 놀보의 악행¹⁶⁾은 재담으로도 나열되어 있지만 상속의 문제, 동생에 대한 폭언과 폭행, 동생의 부(富)에 대한 질투, 아내에 대한 폭행, 부에 대한 탐욕 등으로 장면화되어 나타난다.

- ① 저만 나에 아모 집 드난을 흐던지 흐다 못흐야 술장스를 흐야 먹드리도 무슨 짓을 못흐여 나다려 통촉흐라니 엇지라고 응(6)
- ② 이놈 세간을 엇어가지고 잘산다 하니 바람부는 날 불을 노코 오리라 (59)
- ③ 이놈이 게집을 쳐도 남 류 달으레 쥬먹을 모나게 취고 겨들랑 밋 굴비 썩 위를 들입다 뷔뷔니 게집이 쏙물을 여러번 토흐엿것다(68)

놀보의 악행은 계산적이라기보다 본능적이다. 『연의각』 놀보는 경제인으로 설명되었던 이본¹⁷⁾과는 상당히 다르게 질투, 탐욕, 폭력 등 감정적 본능적 영역에 놓여있다.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박의 재앙이 끝까지 드러나도록 박을 타는 어리석음이 인간의 본원적 탐욕에 대한 유비적(類

16) 놀보의 악행이 강화되어 드러나는 것이 『연의각』의 특징으로 보이기도 한다.(정충권, 2006) 그것은 도덕적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악의 명료한 대비와 악에 대한 정당한 징벌을 통해 ‘가학’의 죄책감을 덜면서 정의감 어린 가학을 맞보려는 통속소설 독자들의 성향이기도 하다. 군담소설이나 장편소설에서도 악한 자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행하는 서사는 빠지지 않는다. 그것이 당대 통속소설 독서인들의 취향이었다. 물론 현재 많은 드라마나 대중소설에서도 유효한 부분이다.

17) 신재효본을 비롯한 창본에서는 놀보의 악행이 경판본 계통보다 약화되어 있다. 때로는 놀보 박 장면이 사라지기도 한다. 그에 부담을 느끼는 향유층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설 독자들이 이 부분을 선호했다는 것은 독자가 텍스트에 관여하는 힘을 보여준다.

比的) 경고로 보인다. 현실적 인간으로 구체화되기보다는 인간의 제어되지 않는 탐욕과 이기적 본능이 육화(肉化)되어 나타난 우화적 성격 때문에 시대를 넘어 보편적 공감을 일으킬 수 있었다.¹⁸⁾

그런데 서사의 주축을 이루는 흥보와 놀보의 관계에서 놀보의 악행이 서술자의 의식적 언명으로 ‘우애의 상실’로 설명되지만 실제 서사적 장면화에서는 재산을 독점한 놀보가 흥보를 가난으로 내몬 것으로 나타났다.¹⁹⁾ 놀보가 구축한 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 역시 재산을 몰수하고 육체적으로 징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사적으로 재산 독점의 행위가 형제 관계에서 야박함, 우애 상실로 설명되면서 악행으로 규정되는데 이것은 빼앗긴 재산에 대한 분노를 윤리적 분노로 전유하는 독서를 이끄는 기제가 된다. 의식주의 결핍과 슬픔과 가난을 반복적으로 환기시키면서 그에 대한 공적(公敵)을 놀보로 천명하는 장면화는 경제적 현실을 윤리적 문제로 치환하려는 시각이 담겨 있다. 그러나 윤리적 치환은 장면화보다는 서술자의 직접적 언명인 경우가 많이²⁰⁾ 장면화의 정서적 효과는 궁핍의 형상에 대한 연민·슬픔과 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18) 이 작품이 통속소설로서 당대의 감정구조를 충실히 반영하는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흥부전> 서사의 오랜 생명력도 조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출판되고 교육되었기 때문에 고전이 된 것이지만, 그것을 고전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전적으로 물질적 제도적 조건에만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고전으로서의 수용방식에서 지 금껏 변하지 않고 있는 통속적 감정구조와 도덕적 양극화 사고에 대한 비판적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19) 신재효본과의 뚜렷한 차이가 여기에 있다. <(4a) 이 세간은 나 혼즈 작만흔니 네게는 부당이라 (5a) 나는 싱일만 시기고 즈근 아덜 사랑음드 글공부 시기더니>와 같이 신재효본의 놀보에게는 악행의 이유가 있다.

20)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3) 대리충족, 쾌감

대리충족은 ‘박’ 장면에서 주로 드러난다. ‘박’ 장면은 흥보 박 이야기가 42~59면, 놀보 박 이야기가 70~99면에 해당되어 전체 분량의 반을 넘는 다.²¹⁾ 이것은 독자들이 ‘박’ 장면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카타르시스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흥보박과 놀보박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흥보박은 부를 대리충족하고 놀보박은 도덕적 우위에서 징벌하는 쾌감을 맛보게 한다. 흥보박은 흥보의 결핍에 대한 보상욕구를 동반하고 있는 형상이라면 놀보박은 징벌하는 자의 우월감과 복수의 통쾌함을 제공하는 형상이다. 이것이 통속소설에서 독자들이 가장 탐닉하는 부분이 됨은 물론이다. 물질적 풍요의 대리 경험과 정당화된 보복이 주는 쾌감으로 독서는 완결된다.

흥보박²²⁾에서 나오는 것이 의식주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부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좀 더 일반화한다면 <흥부전> 독서인의 상상력을 대변하며 한글 통속 소설 독자들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놀보가 가진 재화를 양적으로 확대시켜 흥보에게 옮긴 것 이상의 다른 부(富)에 대한 상상이 불가능했다는 것은 당시 경제 규모에서 꿈꿀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의식주의 해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놀부의 악행 장면에 대한 서술과 징벌은 독자에게 또 다른 쾌감의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21) <흥부전> 박장면은 신재효 <박타령>에서 65%이고, 박봉술 창본에서 41%이며, 경판본 <흥부전>에서는 64%이다. (김종철, 『흥부와 놀부 박의 화두·행복과 욕망, 그리고 선악(善惡)-』, 『선청어문』36, 서울대학교국어교육과, 2008, 45~67면.)

22) 박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서정문, 『「흥보가」 ‘박사설’의 생성과 그 기능』, 『관소리 사설연구』, 형설출판사, 1984, 정충권, 『흥보박사설의 형성과 변모』·『놀보박사설의 전승양상』, 『흥부전연구』, 2003, 219~268면. 등이 있다.

- ① 놀보놈 뽕쓸 마음 흥보에 고초상투 오른손에 감아쥐고 한 손에는 뭉치 쥐고 네 이놈 흥보놈아 잘살기도 너 복이오 못살기도 네 팔자지 년들 엇지흐랴호고 지금 와서 조르느냐 쌀이 만이 있다 흔들 널 주자고 섬 쌀 헐며 벼가 여간 있다 흔들 너 주르고 노적 헐며 콩섬이나 있다 흔들 너 주자고 소 굶기며 찬밥술이 있다 흔들 올이간에 쎄도야지 다 굶기고 너를 주랴 굴뜨며는 엇지라고 이더지 줄르느냐 (17)
- ② 강남 왈자가 나오난디 소래명창 시조명창 탄금 일슈 태견 일슈 밍세 일슈 유식흔 즈 무식흔 자 말 잘호고 구변 존 자 괴운 세고 우악흔 자 능증호고 손 것친 재 디자 소자 우자 걸자 선자 악자 근자 부자 빈자 약자 강자 꾸역꾸역 나온다...우리는 강남 왈자로다 투전홀 더 잇느냐 이 물건 잡고 삼천량 너여노아라 룩무당 츠러로코 무디방으로 혼변 썩 아보겟다 네 계집 어디 갓나냐 썩 나와 다리 좀 치라 흐여라 쓸만하면 오날밤 수청 좀 드리겟다(95~96)

①과 같이 선/악의 절대적 구분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②와 같이 놀부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는 놀부박 장면에서 독자들이 가해자의 입장에 동일시한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었다. 흥보박만으로도 놀보에 대한 징벌효과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놀보박은 복수의 쾌감을 반복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물론 놀보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재담이나 연행 요소를 통한 웃음·쾌락의 경험이다.²³⁾

이와 같이 『연의각』 장면화는 도덕적 우월감 혹은 정당화에 기반한 공

23) 유광수는 「흥보전 작품군에 나타난 가요의 양상」, (『우리어문연구』8, 우리어문학회, 1994, 177~196면.)에서 <흥부전>의 가요를 창작가요와 삽입가요로 분류하였다. 당시 유행하던 노래를 상당 부분 수용했으며, 또 <흥부전>의 노래들이 독립적으로 불리기도 해서 그 영향 관계는 단선적이지 않다. 재담과 연행 요소에 대한 것은 다음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감/연민/카타르시스/유희/쾌감/대리충족 등의 다양한 정서적·인지적 수용의 효과를 낸다. 때로는 각 수용 경험이 서로 연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놀보에 대한 징벌자의 입장에 동일시하는 것은 흥부의 선에 대한 공감·정당화와 독자의 동일시가 전제로 된 것이므로 가해자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면서도 도덕적 우위에서 오는 쾌락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언어적 쾌락의 경험: 재담/노래 읽기와 감각적 유희적 독자

<흥부전>은 재담소리라고 할 만큼 연행의 영역과 긴밀할 관련을 보이고 있다.²⁴⁾ 이해조 역시 소설 작품에서 재담을 활용하여 장면을 구성하는 경향이 발견되는 만큼 재담에 대한 선호가 있는 작가이다.²⁵⁾ 물론 『연의각』에서 재담은 이해조 개인 작가의 역량은 아니지만 재담이 당시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언어 형태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²⁶⁾ 노래

24) 재담이란 ‘재미있는 내용을 재치 있게 하는 말’이거나 ‘말을 재치있게 하여 재미나게 하는 말’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서대석, 『한국구비문학에 수용된 재담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3면.)

25) 재담이 이해조 신소설의 장면 구성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시연되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숫갯흔 계집 스오명이 몸에 찬찬 의복을 입고 름고에 갓인 노리기를 차고 한들한들 되썩되썩 드러오며 즐비하게 안진 남작 앞에 가 한팔을 공손히 잡고 납으적이 안지며(모란병:22~23)>와 같은 장면화는 「남원고사」를 연상시키는 장면 구성 방법이다. 수사적 표현과 행동 서술로 장면화를 이룬 사례이다. 재담하는 서술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형애, 『여성 이야기를 통해 본 20세기 초 소설 시장의 변모-이해조 <원앙도>·<모란병>을 중심으로』(2010, 10)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33차 학술대회 발표문, 78~80면에서 이루어졌다.

26) 양승국은 1910년대 신파극과 전통 연희의 관련 양상에 대해 논하면서 1910년대 신파극이 공연 레파토리로 등장하면서 판소리 광대들이 지방 순회 공연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반면 재인과 기생들은 활동 범위를 넓혀가면서 신파극과

형태를 서사적으로 수용한 것과 재담 서술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재담을 활용한 노래도 있고, 보통 대화 역시 재담적 어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해 재담적 언어가 제재에 집중하여 단위를 형성한 부분에 번호를 붙여 분석하였다.

1. (1)놀부 심술 2. (7)기물(가난) 3. (8)묘막 묘사 4. (9)홍보 집짓기
5. (22)품팔이 6. (25)돈타령 7. (27) 불기내력 8. (33) 음식노래
9. (36) 담배 10. (37) 아이 어르는 노래 11. (39) 음식공론
12. (45) 제비노정기 13. (46~48) 정체 사설 14. (51) 궁합타령
15. (55) 기물타령 16. (57) 비단 17. (58) 패물 18. (61~62) 산해진미 1
19. (64) 산해진미 2 20. (72) 제비 몰기 21. (73) 제비 제사
22. (78) 박타기-언청이, 굽사등이 23. (80~99) 소동/똥물

여기에서 열거의 방식으로 사물을 환기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1, 2, 5, 6, 7, 8, 9, 11, 12, 14, 15, 16, 17, 18, 19 등 15군데로서 가장 빈번하였다. 이 기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개념어를 이루는 현실의 구체적 대

교류하였다는 것을 매일신보 기사를 분석하여 밝혔다. (『1910년대 신파극과 전통 연희의 관련 양상』, 『한국극예술연구』9, 한국극예술학회, 1999, 47~68면.) 재담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기사는 신파극을 공연하는 혁신단 일행에 박춘재가 합세하였다는 점이다. (매일신보, 1912.12.19) 재담에 대한 당시의 선호는 이 시기 소극(笑劇) 공연의 양태로 알 수 있다. 출판된 고소설이나 신소설이 연극의 레파토리를 제공하고 연극의 성행에 힘입어 출판되는 상황은 이 시기 소설 출판의 문제가 공연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그 이전에도 <本社에서 水宮歌라는 滑稽의新演劇을 今日부터 設行 ㅎ는디 人工으로 製造 ㅎ 獸類魚族의 各種 形體가 天然히 活動 ㅎ 썬더러 蟹主薄의 愛君丹忠과 兎先生의 權變奇謀는 智識開發上 大趣味가 有 ㅎ오니 兪君子는 速枉觀覽 ㅎ시옵 圓覺社 告白(황성신문, 1909.11)>과 같은 광고를 보면 연극무대에서 웃음에 대한 대중적 선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연의각』이 신문 연재되고 출판되고 연극적·재담적 요소가 강화되어 있는 것은 당대 문화 환경에 근거하는 것이다.

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물을 연관지어 유개념(類概念)을 형성하는 것은 오래된 지식의 구조 형성 방법이기도 하다. 이 텍스트에서는 사물에 대한 강한 관심-특히 시정의 물건들, 맛있는 음식, 비단, 돈, 기물 등-을 드러내고 있다. 사물의 나열이 주는 풍요로움의 환상과 사물에 대한 언어적 소유의식은 이 시기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시정의 상품의 수준과 조응한다. 곧 이 소설의 독자들이 현실에서 상상할 수 있는 범주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열거만이 아니라 욕망을 구체화시킨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의식주 충족을 목표로 하는 삶, 욕망과 웃음이라는 쾌락에 대한 지향이 비중있게 드러난다.

흰밥에 가장 잘 혀여 말아먹고 소주에 꿀 타먹고 마른 고기 안쥬하고 평안하게 누어 한잠 잤스면 도케고 또 한놈이 나안지며 나는 살진 도미 움고살리 썩거너어 단장에 폭 쓰리고 쌀을 희게 쓸어 잘 짓고 나박침치 시금히게 담어 마셔가며 실컨 먹으면(36)²⁷⁾

이 정도는 생존의 기본 조건으로서 먹을 것에 대한 열망을 넘어서 잘 차려진 상을 즐기는 쾌락에 대한 상상을 제공한다. 음식 조리법까지 서술하는 음식에 대한 환기는 실제 후각과 시각적 이미지까지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구체적 감각화에 이른 사례이다. 이러한 재담은 서사적 환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경험세계와 욕망을 어휘의 나열을 통해 직접

27) 『연의각』은 곳곳에서 서사적 불일치를 가져오면서까지 인물의 도덕적 품위를 지키려는 의지가 보인다. 흥부 처가 매품 팔려는 흥부를 말려 흥부는 그 말을 듣고 안가겠다고 속이고 간다.(24) 그런데 흥부가 매품 팔러 간 것을 모르는 흥부 처가 뒷부분에서 매품 팔러 간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다.(28) 성에 대한 흥부 큰 자식의 노골적 발화도 이 텍스트에서는 혼인에 대한 발화로 대체되어 있다.(또 한 년석 나오며 인고 어머니 우이 올부터 불두덩이 가려오니 날 장가드려듀오(2a)-경판 25장본 <흥부전>)

적으로 자극한다는 점에서 다른 독서법을 유도한다. 서사적 필연성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의 경험세계와 직접적으로 교감하기 때문에 연행의 장에서 일어나는 창자-청중의 직접 소통의 형식을 닮아있고 서사적 환상에서 탈피하여 현실에서 놀이를 즐기는 착각을 제공한다. 또한 재담은 역사적 전고와 현실의 사물/사건/정서 등을 관련짓는 방법이기도 하다. 현실 대상을 역사성 속에서 의미화시키는 지식 직조 방식이다. '내력' 등의 서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궁합타령이나 정체사설(7, 13, 14) 역시 지식에 접근하거나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형식으로서 형성되어 왔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대상을 서사적 맥락에서 분리시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서사적 행위를 역사적 행위의 패로디로 만든다. 서사적 논리 해체의 방식으로 서사에 다시 회귀하여 '웃음'을 제공한다. 이와 대비되는 진지한 방식이 전고(典故)이다. 당대 전고 활용의 글쓰기 방식을 전도시키며 웃음으로 유도한다.

소극(笑劇, farce)의 성격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인간, 축제적 장면 나열, 연행의 패러디 등(21, 22, 23)으로 웃음과 왁자지껄한 소동을 보여준다.

(놀) 마당쇠야 광문 열고 (마) 예- (놀) 네 뒤광문 열어라 홍보 마음에 올타 형님이 광문을 열나시니 벼섬이나 주실느넵게다...네 그 뒤에 박달몽치가져오너라 놀보놈 뭉쓸 마음 홍보에 고초상투 오른손에 감아쥐고 한 손에 놀 몽치 쥐고 네 이놈 홍보놈아 잘살기도 너 복이오 못살기도 네 팔자지(16)

언어 자질을 활용한 재담이 아니라 웃음을 유발하는 형식화된 이야기 패턴으로 장면을 형성하였다. 웃음 포인트를 상식적 기대/어긋남에서 찾고 있는 이러한 정형화된 패턴은 정체 사설이 그렇듯이 다른 이야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독자는 이야기의 현실 논리에 따라 주어진 비애로서 경

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형식에 따라 웃음으로 경험한다는 점에서 재담이라는 형식적 조건이 내용의 논리성보다 먼저 독자의 시선을 잡는다.

각자 특기를 가지고 나와 순서를 이어서 노래와 춤을 보여주는 것 또한 일반화된 웃음 장면이다.

- ① 흥부 또한 춤을 춘다 려산 오상 긴 장단 여민락염불타령 양청 도드리로 거드러거리고 능청1.거리고 션분거리고 쉼동거리서 성쥬풀이 범고춤 산두도감 짝기춤으로 춤이 여러 가지로 혼가지도 당치 못하게 쥬것다 춤시작을낭 흥고 귀운이 업고 비가 곱흔 팔을 늦게 들고 열시고(32~33)
- ② 박국을 먹더니 놀보쳐도 당동당동 아희들도 당동당동 놀보도 당동당동 소래를 요란이 하니(96)

이야기에서 미끄러지는 독서 경험은 ①, ②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사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춤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은 연행 현장을 상상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장치이다. 이와 같이 재담에 대한 독서는 언어 자질들-리듬, 소리-과 언어와 조응하는 독자의 감각 경험-후각, 미각, 시각, 청각-, 시정에 대한 실제 경험 등을 환기시키기 때문에 이야기가 구성하는 환상과는 달리 인물이나 사건에 매개되지 않고 직접 독자와 연관을 맺는다.

재담/노래는 언어와 조응하는 독자의 현실적 경험을 환기시켜 환상적 욕망 충족을 가능하게 하거나 언어 형식으로서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논리, 인물, 사건 등을 매개로 한 독서와는 다른 경험 형식을 구성한다. 재담은 어휘 선택과 배열, 이미지 구성의 비상식성과 복잡성 때문에 기괴미와 관련될 수 있는 성향이기도 하다. 사물에 대한 지향과 감

각적 이미지 구성, 정서의 복잡성 등은 현실 인식의 미흡함이나 비과학적 비합리적 인식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하지만 독서 효과로서 웃음을 유발하는 근본 조건이 충족된다면 재담에서는 무엇이건 조롱이나 비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을 겨냥하는 것 이상으로 현실적 이미지에 위배되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 감각 구성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의미보다 이미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언어 효과에 주목한 방식이다. 물론 그 결과가 때로는 현실적 저항이 되기도 하고, 현실의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반성적 언어가 아니라 놀이적 언어라는 점, 그것이 어떤 현실적 의미 구성에 가 닿는가는 놀이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²⁹⁾ 재담 기법은 그것을 활용하는 자의 의지에 작용하여 현실적 의미를 얻게 된다. 그것이 권력자의 인격에 대한 조롱이거나, 약자에 대한 조롱으로 나타날 때 언어 형식이 놀이하는 자의 의지에 따라 전유된 것이다. 『연의각』에서 언어형식은 의도를 가진 공격으로 수용되지 않고 상식 세계에서 이탈하는 놀이의 즐거움으로 경험된다. 비체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불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재담은 당시 시정의 욕망과 쾌락적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³⁰⁾

28) 기괴미, 그로테스크에 대해서는 「변강쇠가」를 중심으로 여러 번 논의되었지만 (김종철, 김창현, 최해진, 서유석, 이주영 등의 연구가 있다.) 판소리 문학 전반의 특징으로도 언급되었다. 정충권,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사회적 상상력과 기괴」,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2007, 93~114면.이 그러한 시각이다.

29) 물론 저항의 시대에 재담의 이미지 구성 방식이 ‘권력’적 대상에 집중할 수는 있다. 현실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담 자체가 지배 권력에 대한 반항을 추구하는 것만은 아니란 뜻이다.

30) 재담에서 시정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언어 놀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삼국지연의」와 같은 시정 소설 독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 「맹자」·「통감」·「천자문」 등 시정 상품화되어 있었던 초급 교육서에 대한 언급 역시 나타난다. 재담에는 당시 시정 이미지의 편린이 담겨 있다.

4. 상식 도덕 확인의 경험: 서술자 개입과 해석, 대표독자 효과

상식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또는 상식 도덕을 환기시켜주는 서술은 독자들의 편안한 독서를 도와주는 기제이다. 상식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 주인공에 동일시해서 독서하는 것이 쾌락을 정당화하고 독자가 죄의식 없이 때로는 우월감을 갖고 악인을 징벌하고 정의감을 느낄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연의각』은 기존 <홍부전>에 비해 도덕적 서술에 대한 강화가 눈에 띈다. <홍부전>에는 기본 서사에서부터 선한 자의 승리와 악한 자의 징치라는 도덕적 상투성이 있으나 서술자의 서술로 강화된 상식 도덕에 대한 공유는 사건 진행에 대한 도덕적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기본 토대가 된다. 또한 상식 도덕의 강화는 작가 혹은 개작자의 계몽적 태도에서 기인한다기보다 통속소설의 성격을 배가시켜주는 것으로 보인다.

燕의脚(박타령朴打令)豫告

요선 지리로 전회오는 타령중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토끼타령 등은 본리 유지한 문장지스가 충효의 절의 도훈 취지를 포함하여 징악창선하는 큰 기관으로 저술한 바인더 광디의 학문이 부족함을 인하여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함이 정대헌 본 뜻은 일어버리고 음란천착한 말을 징연부익하여 하등 무리의 찬성은 밧을지언당 초유지각한 사름의 타미가 날로 더하니 엇지 개탄 할 바가 안이라 하리오 이럼으로 본 기자가 명창 광디 등으로 하야곰 구술케 하고 축조 축조 산정하여 임의 춘향가(獄中花)와 심청가(江上蓮)는 이독하는 귀부인 신스점각한 박슈갈치 하심을 밧엇거니와 초호브터는 박타령(燕의脚)을 산당 게지할 터인디 춘향가의 취지는 렬형을 취했었고 이번에 게지하는 박타령은 형대의 우익을 권장하기 위함이니 왕왕 허탄한 듯 한 말은 실상 그일이 잇다 질론함이 안이라 한갓 탁스로 사름의 밧음을 풍간함이니 아모도록 광디타령이라고 등한히 보지 마르시고 그 타령 저술한 넷사름

의 도훈 뜻을 김희 숲히시우³¹⁾

이는 이해조의 『연의각』 연재 예고이다. 『연의각』이 도덕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작품임을 강조하였다. 전대 소설 읽기를 정당화하는 담론이 도덕적 교화를 강조하던 것임을 생각할 때 다르지 않은 진술이다.³²⁾ 곧 여전호 소설에 대한 폄하하는 상식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것을 상쇄할 논리 역시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상식화된 도덕적 목표를 확인하며 소설 읽기를 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소설 독서를 유도하는 근거가 된다는 뜻이다. 통속소설 독서 일반에서 기대하는 항목 중 하나는 도덕적 상식의 확인이다. 그럼에도 이런 제스처는 ‘고소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일반의 평가와 차별화시키고³³⁾ 당시 풍속개량 논의에 편승하려는 것이다.³⁴⁾ 도덕적 딜레마는 현대적 ‘개인’의 문제이지, 『연의각』과 같은 소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곧 도덕적 당위에 대한 의심은 없으며, 기존 제시된 도덕률을 전제로 하거나 강화시키면서 통속적 탐닉을 지향하는 소설이라고 할

31) 『매일신보』, 1912.4.27. 1면

32)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I』(태학사, 2001)/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II』(이회, 2005) 참조.

33) 고소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시장의 한 입장은 자주 인용되는 이해조 『자유종』 대목에서 드러난다. ‘음탕교과서 처량교과서 허황교과서’로서 규정된 고소설과 풍속개량에 방해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소설이 영향력이 크니 풍속개량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풍속개량이 이해조에게는 기존 소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강조점이었다. 실제 그의 소설에서 고소설을 포함한 오락적 독서물 독서의 영향이 다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소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소설 상품내에서 차별화시키려는 욕구가 강했다고 보인다.

34) 풍속개량 담론과 더불어 전대와 차별화를 추구했던 당시의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풍속 개량의 대상으로는 ‘연희장의 음부탕자’가 포함되어 있다. 미신타파나 조혼철폐보다도 이해조 소설에서 여주인공의 요소함은 더욱 두드러진다. 도덕의 식으로는 전대와 다를 바 없으나 풍속개량으로 묶이면서 ‘근대적’ 덕목으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수 있다. 그러므로 『연의각』의 통속적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상식 도덕에 대한 강조이다.

후한 씨 강평이는 스인일피 덧헛스며 진나라 유균이는 형역불거흐얏거늘
 디순 아오 상이 잇고 도척의 형 류흐헤라 그 아니 이상한가 흐늘이 슝름 니
 미 오성고로 쥬엇건만 엇던 슝름 우애 잇고 엇던 슝름 부데한고(1)

서두에는 가난함 속에서도 우애를 지켰다는 것, 형제의 행악에도 감화시키는 우애가 있었다는 것을 서술하여 서사 전개에서 나타나는 선과 악, 가난, 우애, 해피엔딩 등을 다 갖추어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³⁵⁾ 기존 <홍부전>에 대한 독후감이자 강조점이라고 하겠다. 이해조이거나 혹은 또 다른 개작자일지라도 그는 도덕적 규범 세계의 우의(寓意)로 <홍부전>을 읽었다는 것이 된다.³⁶⁾ 곧 이러한 읽기는 도덕적 지표들을 강화하여 읽는 전통적 소설 읽기의 방식이며, 전고(典故)와 비교하여 현실을 구조화하는 오랜 학습 방법이기도 하다.³⁷⁾ 서술자는 논평으로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려 독서의 방향을 명확히 전제하였다.

홍보: 마음이 착하고 효행이 지극하고 동기간에 우의 극진한디(1)/홍보는
 마음이 착하야 부모전 효행 동기간 우의 일가간 화목 봉우간 믿음
 일동 슝름이 모다 홍보를 칭송흐는디(3)/마음이 근본 곳은 슝름이

35) 『연의각』 연재를 시작하며 이해조가 표방했던 명제와 일치하며, 기존 <홍부전>과 다른 서두라는 점에서 이 시기 형성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6) 이런 방식의 소설 읽기는 교훈을 위주로 소설 읽기의 명분을 내세웠던 기록에 나타난 소설 수용 경향과 꼭 일치한다. 무악고소설학회편, 위의 자료집 참고.

37) 한문산문에서는 중국 문인들이나 고전들의 사례를 통해 자신의 현재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다. 조선의 소설에서도 전고 활용은 서술의 흔한 기법 중 하나이다.

라(34)/홍보에 착훈마음(99)

놀보: 부모도 담지 안코 동귀간에도 오장 달느 부모께 불효하고 동귀간
에 우의를 못하야 마음 쓰는 것이 괴상하것다(1)/ 놀보 즈식이 악
동이였다

홍보 처: 홍보 마누라 착훈 마음에(11)

놀보 처: 놀보 계집 못슬년도 그 어질고 착훈 동식(8)/ 악하고 독훈 마음
이 놀보계집이 놀보보담 몇비가 더하것다(8)/ 이년 쏘훈 몯슬
년이라 (19)/ 놀보 계집 욕심은 제서방보다 흥칭 더하야 더훈 것
을 보면 기결을 일수히(67~68)

서술자의 해설적 서술과 논평적 서술은 인물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을 강화하고, 도덕률의 내용을 구성해준다. 판단은 이미 텍스트 내에 명료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독자의 몫이 아니며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독자는 홍보/홍보처와 놀보/놀보 처를 우애가 있고 없음으로서 선과 악을 가름한 대표독자로서³⁸⁾ 서술자의 유도를 따라 읽게 된다.

38) 독자에 대한 주목은 독자반응비평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위에서 제시한 대표 독자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움베르토 에코의 모델 독자에 대한 설명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텍스트 전략을 조직하기 위해 작가는 사용하는 표현들에 내용을 부여해 줄 일련의 능력들에 의존해야 한다. 그것이 의존하는 능력들의 총체는 자신의 독자가 의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추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작가 자신이 생각했듯이 텍스트 실현에 협력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생성적으로 움직였듯이 해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델 독자를 예상할 것이다.(87면)”그런 의미에서 의미 코드가 아니라 텍스트에 새겨 넣는 어휘의 선택이나 서술적 문장들로 추출될 수 있는 독자는 텍스트가 전략적으로 전제한 독자라고 할 수 있다.(움베르토 에코, 『소설 속의 독자』, 열린 책들, 1996.) 이 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독자의 감정을 구체화하는 정서적 유도 기제가 서술자의 목소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대표 독자 효과로 칭하였다.

5. 결론-『연의각』을 통해서 본 1910년대 통속소설 시장 독서경험의 한 사례

『연의각』은 기존의 <홍부전> 텍스트, 특히 경판본과 친연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해조라는 20세기 초의 작가가 개입되어 있다. 이해조는 애국 계몽적 신소설로 출발하였으나 1910년대 이후 통속화되었다는 학계의 상식화된 평가가 있다.³⁹⁾ 그러나 그가 애초에 통속적 지향이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근기(近畿) 유흥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문기자로서의 이력이 유행과 독자의 성향에 민감한 사람임을 방증한다.⁴⁰⁾ 그리고 기존 작품들에서 활용한 모티프들이 고소설이나 야담, 연행문화에서 차용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1910년이라는 기점과 무관하게 그가 19세기 통속소설 시장에서 성장해 온 소설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¹⁾ 이런 사실들에서 볼 때 이해조가 1910년대 이후 통속화되었다는 기존 평가와 일제하 ‘검열’을 의식하여 다시 구소설 출판이 활기를 띠었다는 의견⁴²⁾은 어느 정도 수정되어야 한다. 20세기 초 통속소

39) 이해조에 국한해 본다면 1910년 이후 통속화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 같다. 그러나 1910년 이전 이해조의 소설이나 그 이전 20세기 초 출판된 한글소설들을 통속소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서사를 갖추고 있지만 소설이라고 하기 어려운 형태들이 신문에서 실험되고 있었지만 일반의 의식 속에 있는 ‘한글소설’은 통속으로 탄생했고, 통속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40) 당대 사건들이 소설 소재로 수용되며, 기방 풍경 서술이나 노래의 인용도 드물지 않다.

41) 이해조가 『제국신문』에 연재한 후 단행본으로 출판한 소설들은 몇몇 주제적인 면에서 과거를 부정하고 있으나 실제 모티프나 장면화, 인물 설정을 구소설에서 가져오거나 동일한 의식으로 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국신문의 여성독자들을 의식하는 소설쓰기 태도도 엿볼 수 있다.

42) 이주영은 일제의 검열이 고전소설의 유행 현상을 불러일으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주영, 『구할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물론 그런 면이 있으나 소설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반면 시장이 새로운 창작으로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웠고, 이 시기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콘텐츠가 고소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설 출판 시장은 19세기 출판 시장의 성장을 토대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리고 구소설 출판은 소설 독서에 대한 독자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했고, 새로운 기획으로 콘텐츠를 공급할 만큼 출판 관계자들의 역량과 자금 사정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영세한 시장 조건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에 더해 ‘한글 소설’에 대한 기본 관념과 요구가 ‘통속’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전반적 소설 시장의 감성 구조도 작용하고 있었다. 분명 새로운 독자와 새로운 작가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있었지만 1910년대 통속소설 시장의 경향은 19세기의 연장선에서 확대·변모·성장하고 있었다. 또 하나 구소설 출판의 성행은 20세기 초 매체 환경의 변화를 따른 통속 문화의 급성장이 기반에 있었다. 무대의 콘텐츠와 신문 연재, 출판이 연동하고 있다는 것이 『연의각』 서술에서도 발견된다. 독자의 정서적 공감과 공분, 슬픔의 장면으로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추구하고, 서술자가 서사와 인물에 대해 명확한 평가를 내리며, 묵독하여 의미를 추구하는 독자가 아니라 낭독/청각적 경험을 추구하고, 서사적 환상이 아니라 독자의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려고 하는 재담/연행 언어가 특징적이라는 것은 통속소설로서 『연의각』이 의식하고 있는 독자의 성격을 암시한다.

이 논문은 장면화와 서술자의 진술, 재담 및 연행 요소가 독자들에게 주는 독서경험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면의 선택과 강조하는 언술, 수용하는 유행 요소 등은 주제가 구성되는 바탕인 그들의 경험적 현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우애’라는 주제는 가난-약자의 편에서 강자-악인을 징벌하는 장면화를 거쳐 서술자의 언명으로 강화·구현된다. 이것은 우애 좋은 형제의 모습으로 우애를 주제화하는 것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윤리 규범의 강제력과 구속, 동질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빈/부’라는 주제는 빈자의 편에서 부를 획득하고 부자의 부를 박탈하는 전도적 양상

이다.

으로 구현된다. 이것은 빈/부의 문제가 그 시기 매우 갈등적으로 인지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제비를 매개로 하고 있으나 뒤바뀐 홍보와 놀보의 위치는 전체 부의 상승을 꿈꿀 수 없었던, 한정된 물질적 부만이 상상되었던 공동체에서 가능한 서사였다.⁴³⁾ 그런 의미에서 『연의각』은 통속 소설 독자의 사회적 상상력을 매우 명징하게 보여주는 텍스트로 보인다. 거기에 더해 주제적 접근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소설의 축제적 요소일 것이다.⁴⁴⁾ 조선후기 유행했던 언어 형태인 재담 언어가 지향하는 사물과 욕망과 이미지의 세계는 현재의 규범적 기준이나 체계성으로 포획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오랜 시기 연구자들은 의미를 지향했지만 향유층·독자들은 놀이를 지향했다는, 텍스트를 대하는 자세의 차이를 이 텍스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재담 요소나 연행 요소들도 소설의 한 구성 요소가 되면서 전체 서사적 의미 지향 내에 배치되기는 한다. 그 이전부터 부분의 독자성이라고 하거나 단위사설, 삽입 가요 등 독자적 성격으로 이해되었던 부분이다. 이 부분들에서 핵심적인 것은 언어 감각을 활용한 놀이 효과이다. 현대의 소설에서는 그런 놀이 효과를 기대하는 감성적 요구가 크지 않다. 놀이 효과를 담당하는 다른 미디어,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급을 가로지르는 도시의 대중이 형성되고 있던 시

43) 제비를 매개로 한 부(富)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지만 놀보와 홍보의 관계 역학이 뒤바뀐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 텍스트에서 공들여 형상화한 ‘가난’은 공적(公敵)인 놀보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의 공적을 설정하는 방식은 부의 분배구조 문제나 생산량의 문제를 윤리적인 것으로 치환하는 상상 틀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문법이 공고화되면서 독서 공동체에 수용된다면 당면 문제의 해결법은 적대적이며 갈등적일 수밖에 없다.

44) 성현경, 『흥부전연구』, 『판소리연구』4, 판소리학회, 1993, 29~63면 참조. 이 논문에서는 <흥부전>의 다성성을 주목하였다. 다성성은 당시의 모든 공식문화를 회화화하고 해학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축제적 시간과 공간의 구현·재현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기에, 통속 소설은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다양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현재 다양한 대중 매체가 대중에게 주는感性구조들을 종합적으로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자료

이해조, 『연의각』, 1913, 신구서림

Kinds 고신문 DB

경판 25장본 <홍부전>

저서·논문

권보드래,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 267면.

김종철, 『실전 판소리의 종합적 연구-판소리사의 전개와 관련하여-』, 『판소리연구』 3, 판소리학회, 1993, 87~152면.

김종철, 『홍부와 놀부 박의 화두-행복과 욕망, 그리고 선악-』, 『선청어문』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45~67면.

김현주, 『판소리의 다성성, 그 문체적 성격과 예술, 사회학적 배경』, 『판소리연구』 13, 2002, 127~149면.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I』, 태학사, 2001, 1~270면.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II』, 이회, 2005. 1~365면.

배연형, 『심정순일가의 음반』, 『한국음악사학보』28, 한국음악사학회, 2002, 5~28면.

서대석, 『한국구비문학에 수용된 재담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1~132면.

서정문, 『판소리 사설 연구』, 형설출판사, 1984, 1~283면.

성현경, 『홍부전연구』, 『판소리연구』4, 판소리학회, 1993, 29~63면.

송혜진, 『심정순 창 심청가의 장단구성 특징』, 『정신문화연구』34, 정신문화연구원, 1988, 209~320면.

양승국, 『1910년대 신파극과 전통 연희의 관련 양상』, 『한국극예술연구』9, 한국극예술학회, 1999, 47~68면.

- 유광수, 「홍부전 연구의 검토와 전망」, 『우리어문연구』23, 우리어문학회, 2004, 343~371면.
- 이보형, 「심정순의 생애와 예술」, 『한국음악사학보』18, 한국음악사학회, 1997, 9~16면.
- 이보형, 「판소리 공연문화의 변동이 판소리에 끼친 영향」, 『한국학연구』7,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1995, 261~319면.
- 이주영, 『구할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1~234면.
- 정충권,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사회적 상상력과 기괴」, 『국어국문학』146, 국어국문학회, 2007, 93~114면.
- 정충권, 「홍보박 사설의 형성과 변모」·「놀보박 사설의 전승양상」, 『홍부전연구』, 2003, 219~268면.
- 정충권, 「『연의각』의 계통과 성격」, 『개신어문연구』24, 개신어문학회, 2006, 69~87면.
- 정충권, 『홍부전 연구』, 월인, 2003, 1~357면.
- 주형예, 「19세기 판소리계 소설의 서술기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주형예, 「여성 이야기를 통해 본 20세기 초 소설 시장의 변모」, 한국고전여성문학회 33차 학술대회 발표문, 2010.10.
- 홍성찬, 「한말 일제초 서울 종로상인의 일상활동-포목상 김태희 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133, 115~173면.
- 움베르토 에코, 「소설 속의 독자」, 열린 책들, 1996. 79~104면.
- 스티븐 로베르너파울슈티히, 『근대초기 매체의 역사』, 지식의 풍경, 2007, 385~438면.
- 로저 피셔, 『읽기의 역사』, 지영사, 2011, 16~17면.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scenes · jokes · narrations of
『Yeonuigak(燕의脚)』

Joo, Hyung-Ye

This study examines reading experiences of the first part of the 20th century with 『연의각(Yeonuigak)』 which is a kind of <흥부전>(Heungbujjeon). 『연의각』 has several strategies that let the readers be sentimental emotion. And the readers come to be sensory and playing because of puns and songs. Add to that, the text has some keynotes which give common morals to readers when they compose meanings.

The result suggest that the readers are emotional · sensory · acceptant. The sensory structures of 『연의각』 show the novels of 20th centuries are synthetic media when the urban messes have little means to play.

Key Words Heungbujjeon, Yeonuigak, narration, scene, sense, pleasure, moral, common sense, play, popular novel, the first part of the 20th century, the experience of reading

논문투고일 : 2011. 3. 31
심사완료일 : 2011. 5. 20
게재확정일 : 2011. 5. 31